

*아래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미국 메인 주의 한 여성은 자신의 고양이를 너구리의 일종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가 키우던 고양이 '루시'는 메인 쿤(Maine Coon)이라는 고양이의 품종 중 하나였다. 내가 사진 속에서 본 루시는 덩치가 큰 고양이이지, 너구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메인 쿤의 'Coon(너구리)'이라는 부분을 보고 자신의 고양이의 덩치가 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어이없는 가설을 내세웠다. 루시는 루시의 어머니가 '매력덩이 너구리'에게 홀려서 태어나게 된 불쌍한 이종교배의 산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허나, 상식적으로 너구리와 고양이는 이종교배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다. 너구리와 고양이가 왜 이종교배가 불가능한 것인지 그녀에게 생물학 수업을 했던 것이다. 그녀는 조금 바뀔 것 같더니, 이제는 새로운 가설을 펼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녀가 기르는 고양이의 까마득히 먼 조상이 '돌연변이 너구리'였다는 것이다.

나는 결국 그녀를 설득하는 것을 실패했다. 개과 동물인 너구리는 왜 고양이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 그녀의 남편까지 끌어들여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고양이 루시는 자신의 품종 이름 때문에 너구리가 된 것이다. 가엾은 루시!

제시문 (나)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하다. 머릿속으로 세 번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생각해보라. 그 뒤에 우리는 그 도형에 삼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무지개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7가지 색을 알고 있다.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초록색, 파랑색, 남색, 보라색. 하지만 정말로 그 7가지만 존재하는가? 그들의 중간적인 색도 생각해 보면 존재하지 않는가? 푸른 바다, 푸른 숲. 우리는 이 두 단어에서 쓰인 '푸른'이라는 단어가 각자 다른 색을 지칭함을 안다. 우리가 이 둘을 같이 쓴다고 한들, 혼동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독일어에는 남자 교수를 일컫는 professor 라는 단어가 있고, 여자 교수를 일컫는 professorin 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들을 차별 대우하는가? 이들의 이름만을 이유로 그들을 차별 대우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정의롭지 않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안다.

그렇다면 이것도 생각해 보자. 만일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소듐이라고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곧바로 그 물질을 나트륨이라고 부르진 못하겠지만, 차차 바뀌어나간다면 소듐으로 바뀌나 갈 수 있다. 사물이 존재하여 우리가 그것을 부르기로 '나트륨'이나 '소듐'의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사물 자체에 해당 언어가 녹아들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나트륨이 아닌, 소듐이라고 명명하기로 약속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굳이 언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물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알아 들을 순 있겠지만, 그것이 비효율적인 행위임은 분명하다. 단순히 우리는 사회의 요구로 인하여 사물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제시문 (다)

푸네스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말을 이었다.

그는 1886년경에 독창적인 숫자 체계를 고안했으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숫자가 이만 사천 개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적어 놓지 않았는데, 그가 생각한 모든 것, 심지어 딱 한 번만 생각한 것이라도 그의 기억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이런 숫자 체계를 고안하도록 가장 먼저 자극한 것은 서른세 명의 우루과이 독립 투사들을 칭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기호 대신에 두 개의 기호와 세 개의 단어가 필요하다는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고는 이 터무니없는 원리를 다른 숫자들에 적용했다. 7013 대신에 (가령 예를 들자면) '막시모 페레스'라고 했고, 7014 대신에 '철도'라고 했으며, 다른 숫자들은 '루이스 멜리안 라피누르', '올리마르', '유황', '카드', '고래', '가스', '냄비', '나폴레옹', '아구스틴 데 베디아' 등이라고 했다. 그는 500 대신에 '아홉'이라고 말했다. 각 단어들은 특별한 숫자, 바로 일종의 부호를 갖는데, 따라서 마지막 단어들의 부호는 극도로 복잡했다. 나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단어들의 광시곡은 숫자 체계와 정반대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다. 나는 그에게 365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개의 100과 여섯 개의 10, 다섯 개의 1을 말하는 것이며, '흑인 티모테오'나 '통통한 살' 같은 '숫자'에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분석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푸네스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제시문 (라)

언어학 교수인 그레고리 미켈슨은 언어와 기억력을 실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음식 첨가물을 각자 같은 수로 이루어진 대학생 집단인 '갭' 집단과 '을' 집단에게 주었다. '갭' 집단에게는 그 음식 첨가물의 이름을 '비앙드'라고 알려주었고, '을' 집단에게는 그 음식 첨가물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후, '갭' 집단과 '을' 집단을 각각 나누어 서로 다른 방에 모아두어 토론을 하게 했다. 두 집단의 구성원들은 모두 눈을 가리기 위해 안대를 착용하였고, 그 음식 첨가물에 대해서는 오로지 맛만 보기를 허용하였다. 이후 그레고리는 각 집단에서 이루어진 토론의 결과를 전부 기록하였다.

15년 후, 그들을 모아 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식품 첨가물에 대한 기이한 토론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의 답변과 토론의 기록 내용을 비교하자,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았다.

〈표〉 토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비율 (단위 : %)

	갭	을
정확히 기억함	24	6
기억하나 왜곡됨	51	50
전혀 기억하지 못함	25	44

〈문제 1〉 제시문 (가)의 '여성의 언행'과 제시문 (나)를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해 비교하고, (다)의 '푸네스'의 '독창적인 숫자 체계'로 인해 '내'가 겪는 문제점을 두 제시문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해설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여성과 제시문 (다)의 푸네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단, 이들의 해결은 상담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1000자 안팎, 50점)